

제 1 교시

국어 영역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님은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룬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 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묻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해 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 ③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 ⑤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23. ㉠, ㉡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 | | | |
|---|------|------|
| |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24.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②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 ④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 ⑤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82년 작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 ①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 ②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 ④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 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군.

26. 문맥상 ㉠~㉣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면(對面)할
- ② ㉡: 간주(看做)되었던
- ③ ㉢: 대두(擡頭)했다
- ④ ㉣: 결합(結合)한다
- ⑤ ㉣: 전개(展開)하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문제풀이 - 1문단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저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역사 연구에 활용되는 '사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시사 연구의 정의와 같이 정의를 다룬 내용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모든 문제를 검토하자.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므로 글을 다 읽고 풀도록 하자.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 ②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
- ③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
- ④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 ⑤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내용 일치 문제이므로 살펴보자.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1번 선지는 옳지 않고,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은 '사료'와는 다르다는 것도 1문단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2번 선지도 옳지 않다.
 1문단 후반 내용에서, 새로운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3번 선지는 옳다. 아니면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3번 선지가 옳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답은 3번.

23. ㉡, ㉢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 ㉢.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 ㉣.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 ㉤.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	㉢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ㄴ
③	ㄴ, ㄷ	ㄱ
④	ㄷ	ㄴ, ㄹ
⑤	ㄹ	ㄱ, ㄴ

㉡, ㉢이 언급된 문단을 읽은 후에 살펴보면 될 것이다.

24.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②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 ④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 ⑤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언급된 문단, 그리고 [A]를 읽은 후에 살펴보면 된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82년 작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 ①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 ②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 ④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 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군.

참조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도록 하자.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면(對面)할 ○
- ② ㉡: 간주(看做)되었던 ○
- ③ ㉢: 대두(擡頭)했다
- ④ ㉣: 결합(結合)한다
- ⑤ ㉤: 전개(展開)하기

각각의 단어가 언급된 문단을 읽은 후에 살펴보면 될 것이다. ㉠과 ㉡의 경우 바꿔 써도 내용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만약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세모 표시를 하자.

2문단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㉓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다큐멘터리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사료로 쓰일 수 있지만 기존 사료와는 대비되는 영화의 특성을 말해주면서, 각각의 특성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문제를 살펴보자.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 ②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
- ③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
- ④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
- ⑤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

영화는 물질성을 띠고,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라는 내용이 나왔다. 문헌 사료의 언어가 상징적 기호라고 했으므로, 4번과 5번 선지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답은 확실하게 3번.

26. 문맥상 ㉓~㉕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대면(對面)할 ○
- ② ㉔: 간주(看做)되었던 ○
- ③ ㉕: 대두(擡頭)했다 ○
- ④ ㉓: 결합(結合)한다
- ⑤ ㉕: 전개(展開)하기

바꿔 써도 내용상 어색함이 없으므로 3번 선지도 옳다.

3문단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㉔ 이룬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역사와 영화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에서는 ‘개연적’,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구분해서 설명했다. 문제를 살펴보자.

26. 문맥상 ㉓~㉕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대면(對面)할 ○
- ② ㉔: 간주(看做)되었던 ○
- ③ ㉕: 대두(擡頭)했다 ○
- ④ ㉓: 결합(結合)한다 ×
- ⑤ ㉕: 전개(展開)하기

‘결합한다’보다는 ‘구성한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답은 4번.

나머지 문제들을 풀 수 없었다. 이렇게나 내용이 많고 다양한 분류를 통한 설명이 있었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한다. 이 문단의 내용은 반드시 <보기> 문제에 쓰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 문제를 풀었을 당시 이 문단의 왼쪽 여백에 ‘<보기>’ 라고 써 두고 넘어갔다. 정보량은 많은데 문제를 푸는데 전혀 쓰이지 않는 문단이 있다면, 필자와 같이 ‘<보기>’ 라고 쓰고 넘어가는 방법을 따라해볼 것을 권한다.

4문단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자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 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자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역사가들이 허구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다양한 기호들(㉠, ㉡, ㉢)이 등장했기에 많은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살펴보자.

23. ㉡, ㉢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
 - ㉢.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 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
 - ㉣.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
 - ㉤.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판소리는 지어낸 이야기이다. 그것에 반영된 음식 문화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의 사례이다. 따라서 3, 4, 5번은 답이 아니다.

㉢의 경우 허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아마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2번은 답이 아니므로 일단 답은 1번이다. 검토를 위해 나머지도 살펴보자.

명나라 당시의 소설에 반영된 상업 활동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의 사례이다. 또한 사건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여성의 심리를 재현하기 위해 설화집의 문장들을 활용한 것은 ㉣의 사례가 맞으므로 확실히 답은 1번이다.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면(對面)할 ○
- ② ㉡: 간주(看做)되었던 ○
- ③ ㉢: 대두(擡頭)했다 ○
- ④ ㉣: 결합(結合)한다 ×
- ⑤ ㉤: 전개(展開)하기 ○

바꾸어 써도 이상이 없다. 따라서 확실히 답은 4번.

5문단

[A]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문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해 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글을 모두 읽었으므로 남은 문제들을 풀어 보자.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 ②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 ③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 ④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역사의 개념을 밝힌 점이 없으므로 1번 선지는 틀렸다.
 영화의 변천 과정을 밝힌 적도 없으므로 2번 선지는 틀렸다.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지문이므로 3번 선지도 틀렸다.
 4번 선지의 내용이 지문 내용에 부합되므로 4번 선지는 옳다. 따라서 답은 4번.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한 적이 없으므로 5번 선지는 틀렸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4번.

24.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 ②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 ③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
- ④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
- ⑤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

㉠의 관점에 부합하면서 [A]의 내용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선지가 답일 것이다. 1번 선지는 [A]의 내용과 반대되지 않으므로 답이 아니다.
 ㉠은 허구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므로 2번 선지도 답이 아니다.
 3번 선지가 [A]의 내용과 반대되기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의 관점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답이 아니다.
 4번 선지 역시 ㉠의 관점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답이 아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고, ㉠의 관점처럼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A]의 내용 중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든다는 내용에 대해 비판적이므로 답이 맞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82년 작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 ①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
- ②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
- ④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 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군.

5번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시사 연구라는 말이 지문 어디에 나왔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필자의 경우는 앞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았기에 해당 내용이 1문단에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미시사 연구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옳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2번.

3문단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자.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의해 1번 선지는 옳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집단적 무의식, 이상, 이데올로기 등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 ‘서머스비’에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2번 선지는 옳지 않다. 답은 2번.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에 대한 설명에서, ‘영화인은 ~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참조하면 3번 선지는 옳다.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이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것이므로 4번 선지도 옳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SpokesAI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문제풀이 - 1문단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점유와 소유의 정의를 알려주며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우선 모든 문제를 검토해보자.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내용일치 문제이므로 살펴보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므로 2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다만 1번 선지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세모 표시를 해 두었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A] 부분을 읽은 후에 살펴보면 될 것이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이 각각 나온 문단을 읽은 후에 살펴보면 될 것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도록 하자.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가 나온 문단을 읽은 후에 풀도록 하자.

SpokesAI

2문단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직접점유, 반환청구권, 간접점유, 공시 등의 정의가 나왔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자.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A]를 읽은 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물리적 지배는 직접점유에 해당하므로 1번 선지는 틀렸다. 간접점유도 점유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선지도 틀렸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에 3, 4번 선지는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생각되어 세모 표시를 했다. 양도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5번 선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빌려 쓰는 것도 직접점유라고 했으니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직접점유이다. 직접점유는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가방과 같은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했으므로, 4번 선지도 옳은 선지이다.

SpokesAI

3문단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소유권 양도의 방법,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며 소유권이 공시되는 두 가지 경우의 정의 및 예시가 나타났다. 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 정의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정의는 앞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

가방과 같은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고 했으므로 3번 선지는 옳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유효한 양도 계약, 소유권 양도 공시가 모두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5번 선지는 틀렸다.
따라서 답은 5번.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피아노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를 통해 공시되므로, 어떠한 형태든 양수인은 점유를 하게 되어야 하므로 5번 선지가 옳다. 따라서 답은 5번이고, 그렇다면 3번 선지와 4번 선지는 틀렸다고 합리화를 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이 나왔으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번 선지의 경우 아직 공적 기록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고, ~될 수 있다 와 같이 가능성을 묻는 형태로 나왔으므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세모 표시를 해 두고 넘어가자.
2번 선지의 내용도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
3번 선지의 경우에는 뒤 내용이 ㉠에 대해 옳지 않으므로 '㉠과 달리'라는 표현이 옳기 때문에 아직 틀리지 않은 선지이다. ㉣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면 될 것이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첫 문장에 나와 있으므로, ㉠에 대해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4번 선지는 틀렸다.
㉠의 경우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 가능하므로 ㉠에 대해서는 옳다. ㉣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면 될 것이다.

4문단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판단했던 29번의 4번 선지에 대한 판단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외에 4문단의 내용으로 현재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 문단의 내용은 반드시 <보기> 문제에서 활용될 것이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의 경우 선의취득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4번 선지의 ㉠에 대한 내용은 옳다. ㉡에 대해서 판단해 주면 될 것이다.

5문단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들과, 그 이유에 대해 언급되었다. 마지막 문단이었으므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1번 선지의 경우 ㉠, ㉢ 모두에 대해 틀렸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이 선의취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므로 2번 선지는 옳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2번.
 건물과 토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므로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다.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은 선의취득이 불가하므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이므로 점유개정을 통해 양도가 공시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2번이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

<보기>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답을 찾고 넘어가자.
 ㉠는 ‘발생한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의미이다.
 따라서 답은 1번.

앞서 4문단의 내용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따라서 4문단의 내용을 잘 살펴보며 이 문제를 풀어보자.

우선 계약의 형태를 보았을 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점유개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을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을과 병 사이에서는 ‘반환청구권 양도’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을이 가지고 있던 반환청구권이 병에게 넘어가서 갑이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모두 유효하므로 1번, 2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그렇다면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면, 우선 ‘점유개정’으로 인한 선의취득은 불가하다고 4문단에 나와있으므로 을은 계약 후에도 소유자가 아니게 된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라도, 즉,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병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갑도 을도 아닌 제 3자라고 해도,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병이 소유권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4번, 5번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된다.

3번 선지의 경우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 또한 애초에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지 않다. 답은 3번.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 ②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 ③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 ④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 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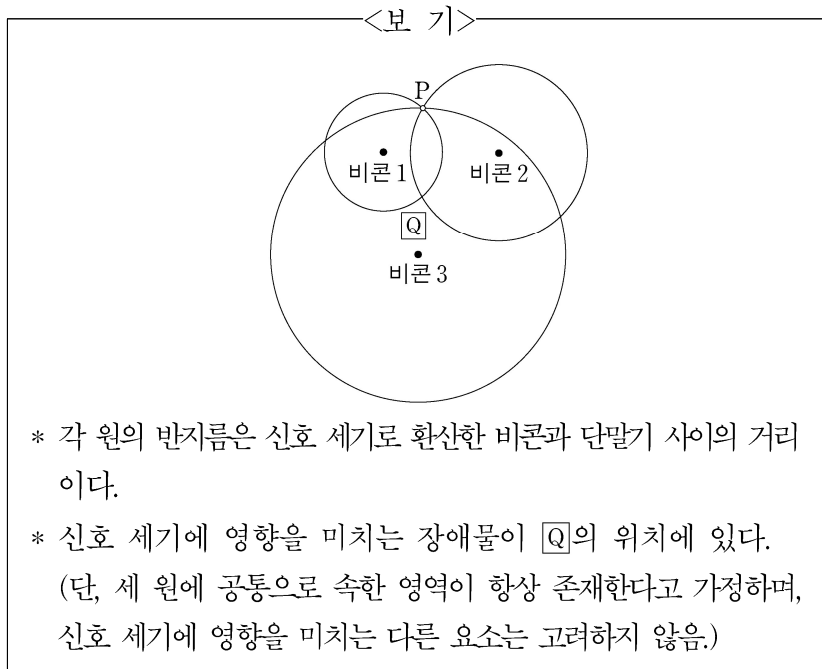
39.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 ②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다.
- ③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 ④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 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 ⑤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 ②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 ④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 ⑤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41.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 ②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1, 비콘2, 비콘3의 순이겠군.
- ③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3에 더 가까이 있겠군.
- ④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⑤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문제풀이 - 1문단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위치 측정과 관련된 글일 것 같다.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의 정의를 잘 살펴보고 모든 문제를 검토해보자.

3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 ②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 ③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 ④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 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지만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없다.

39.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 ②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다.
- ③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 ④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 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 ⑤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오차가 언급된 문단을 읽은 후 살펴보면 될 것이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 ②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 ④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 ⑤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언급되는 문단을 읽은 후 살펴보면 된다.

41.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이다.
*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의 위치에 있다. (단,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 ②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1, 비콘2, 비콘3의 순이겠군.
- ③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3에 더 가까이 있겠군.
- ④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⑤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참조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도록 하자.

2문단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 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수단 2가지의 특성 및 용도를 설명해 주었다. 오차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으므로 39번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문제들을 살펴보자.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
- ②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 ③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 ④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 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

GPS는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고 했으므로, 상대 위치에서나 필요한 '기준이 되는 위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IMU는 위치 변화를 계산하여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고 했으므로 5번 선지는 옳다.
 따라서 답은 5번.

39.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
- ②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다. ×
- ③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
- ④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
- ⑤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GPS이므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3번 선지의 설명은 GPS에 관한 설명일 것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고 나와있으므로 4번 선지도 틀린 선지이다.
 IMU가 측정하는 값이 가속도와 속도이며, 그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에 위치 오차가 커진다고 나와있으므로 5번 선지가 옳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문단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을 위한 비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호 세기 관련 비례관계를 잘 표시해 두고 문제를 살펴보자.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
- ②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
- ③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
- ④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
- 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보낸다고 했으므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비콘은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를 신호로 보내므로, 그것은 비콘을 구별하기 위한 정보일 것이다. 따라서 3번 선지도 틀린 선지이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이라고 나와있고, GPS는 실내로 신호를 보내기 어렵다고 앞서 나왔으므로 4번 선지도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5번이다.

4문단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근접성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쯤에서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남은 문제가 ㉠관련 문제와 <보기>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단의 내용은 분명 <보기> 문제에 활용될 것이다. 다음 문단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읽으며 정의를 주목해두자.

SpokesAI

5문단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삼변측량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문단 전체 내용이 그 정의이므로 주목해서 읽고,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두자. 어차피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와서 보면 되기 때문이다.

6문단

㉠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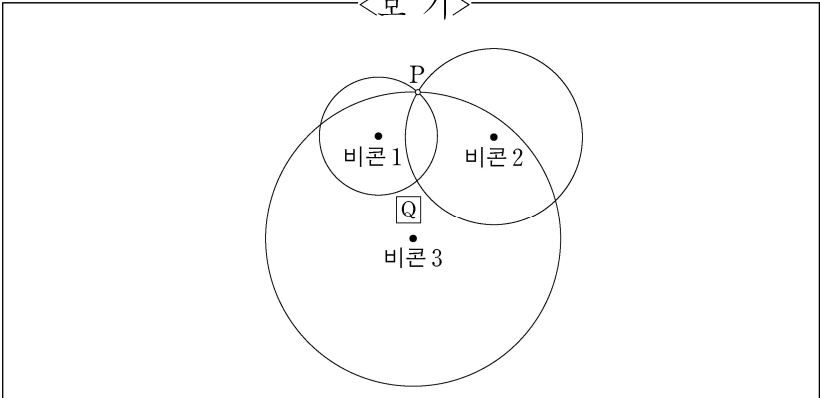
위치 지도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글을 다 읽었으니 나머지 두 문제를 해결해 보자.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
- ②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 ③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
- ④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
- ⑤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

측정 공간의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한다고 했으므로 구역이 많아지면 기준점이 많아진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다.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단말기가 수신한 신호 세기와 데이터베이스 내 기준점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2번 선지도 옳다.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가진 ‘기준점’의 위치를 알려 준다고 했으므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답은 3번.
 비콘을 이동하게 되면 기존 위치의 비콘에서 측정한 기준점들의 데이터가 소용없어지므로 새로운 위치에서 측정한 기록들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4번 선지도 옳다.
 문단 중간 ‘이 신호 세기와 ~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5번 선지도 옳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3번.

41.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이다.
- *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의 위치에 있다. (단,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
- ②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의 순이겠군. ×
- ③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
- ④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 ⑤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각 기법에 대한 설명을 다시 살펴보면 문제를 보면, 근접성 기법은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고 했으므로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 단말기의 위치는 ‘비콘 1’의 위치와 같다. 삼변측량 기법은 <보기>와 같이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한다고 했으므로 삼변측량 기법에 따르면 단말기의 위치는 P이다. 따라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비콘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는 약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현재 비콘과의 거리가 멀다고 측정된다는 것은 신호를 약하게 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호 세기는 비콘 1, 비콘 2, 비콘 3 순서대로 강하다. 따라서 2번 선지도 틀린 선지이다.

앞서 신호가 약하면 거리가 먼 것으로 측정된다고 했는데, 현재 삼변측량 기법에 의한 위치와 비콘3 사이에 Q라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장애물로 인해 신호가 약해진다고 했으므로, 장애물이 없다면 단말기는 보다 더 강한 신호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측정될 것이다. 현재는 장애물에 의해 거리가 멀게 측정된 것이므로 단말기의 실제 위치는 P보다는 비콘 3와의 거리가 더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고, 3번이 답이다.

4번 선지의 경우 앞서 3번을 풀 때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선지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가 P인데, P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비콘 2의 신호 세기가 약해진다면, 단말기와 비콘 2 사이의 거리가 기존보다 더 멀다고 측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콘 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길어지고, 그 상태에서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이 새롭게 측정된 위치가 될 것인데, 그 위치는 당연히 현재 위치인 P보다 비콘 2로부터 멀 것이다. 따라서 5번 선지도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3번.

SpokesAI